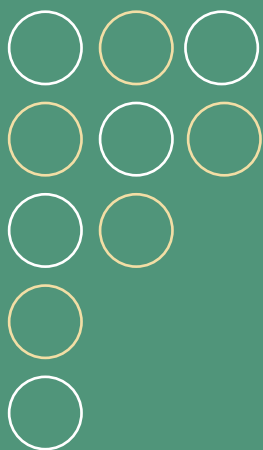


왜 영성인가?

영적 성장을 위한 열 가지 실천



김영봉 지음

Spirituality

왜 영성인가?

영적 성장을 위한 열 가지 실천

TEN PRACTICES FOR SPIRITUAL GROWTH

© 2025 by Discipleship Ministries

ISBN 978-0-88177-992-9 (print)

ISBN 978-0-88177-993-6 (eboo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Published by Discipleship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P.O. Box 340003, Nashville, TN 37203-0003
www.UMCdiscipleship.org

Printed in Korea



DISCIPLESHIP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왜 영성인가?

영적 성장을 위한 열 가지 실천

TEN PRACTICES FOR SPIRITUAL GROWTH

김영봉 지음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서문

우리는 예수님 사역에서 소그룹 운동의 기본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동행하며 훈련하면서 단순한 가르침 전달을 넘어 삶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영적 성숙과 사명 훈련을 위한 모델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에게 깊은 가르침과 돌봄의 원리를 제공하심으로 제자 훈련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소그룹 구조의 핵심 원리를 나누셨다. 또한 함께 먹고, 걷고, 기도하고, 친교하며,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단순한 교제장을 넘어 사명 공동체로 소그룹을 통한 삶과 신앙의 통합을 제시하심으로 영적 공동체 운동의 핵심 토대를 놓으셨다.

이런 소그룹 운동이 존 웨슬리를 통해 속회 운동으로 이어지고, 회개, 격려, 신앙 실천, 영적 책임성 중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화를 이루는 속회로 발전했고, 이런 속회가 감리교 운동의 한 축이 되었다. 더 나아가 속회를 단순한 신앙 유지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장으로 세웠다. 따라서 속회 운동은 예수님이 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 돌봄, 훈련, 파송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공유한다. 오

늘날 우리도 웨슬리가 예수님의 소그룹 모델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전 교인 참여형 제자 훈련 시스템으로 체계화한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점검하며, 서로 격려하고 돌보며, 실천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승화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 소그룹 모임을 속회, 구역, 셀, 목장, 라이프 그룹 등 다양하게 부르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소그룹 운동의 계승과 시대적 정착은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제자사역부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장, 돌봄, 훈련, 실천을 이뤄갈 수 있도록 소그룹 교재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이 교재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 말씀을 기초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씨름하고 부딪치는 주제를 다루고, 함께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나누면서 열 가지 실천으로 인도한다. 이 교재를 통해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점검하며, 서로 격려하고, 실천을 결단하는 일이 이뤄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소그룹 전체 교재를 “왜” 시리즈로 꾸미면서 크리스천 삶에서 꼭 물어야 할 주제를 선정하고, 나 자신의 신앙 영역, 사람과의 영역, 세상과 피조 세계 영역에서의 크리스천 삶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 첫 주제로 “왜 영성인가?”를 다룬다. 김영봉 목사님이 저술한 이 교재를 통해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영성이란 주제가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가깝고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인지 알게 되고, 매일의 삶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열 가지

실천을 배우고 결단하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교재는 동적인 교재다. 다시 말해, 배움이나 나눔이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움직이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는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세워지고 성장한다. 이 교재를 통해 예수님의 소그룹 운동이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제자들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한다.

제자사역부 김광기 목사

차례

시작하는 말	8
기초 다지기: 인간 사용 설명서—“왜 영성인가?”	13
1. 실천 하나: 기도—“영으로 숨 쉰다”	27
2. 실천 둘: 예배—“시간 안에서 영원을 누린다”	39
3. 실천 셋: 성찬—“신비를 먹는다”	53
4. 실천 넷: 말씀—“성령을 숨 쉬며 산다”	67
5. 실천 다섯: 절제—“아껴서 산다”	81
6. 실천 여섯: 읽기와 쓰기—“생각이 힘이다”	95
7. 실천 일곱: 관조—“느린 것이 빠르다”	107
8. 실천 여덟: 공동체—“더불어 산다”	119
9. 실천 아홉: 선교—“삶은 소리가 크다”	131
10. 실천 열: 고난—“사랑은 아프다”	145
마치는 말	158

시작하는 말

대략 1970년대부터 미국 개신교에서는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주류 교회들(mainline churches: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등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과 함께 들어온 교파들)이 쇠락하고 바이블 벨트(미국 중남부와 동남부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개신교의 영향이 큰 지역) 중심으로 복음주의와 보수주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운동이었습니다. 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류 교회가 계승해 온 전통적 신앙과 복음주의와 보수주의의 경건성을 통합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고 세상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개신교 영성 운동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영역 바깥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학 대학에는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 “영성 훈련”(spiritual discipline) 혹은 “영성 지도”(spiritual direction) 같은 과목이 자리를 잡았고, 교회에서도 영성 훈련이 과거에 유행하던 제자화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성 운동은 이천년의 유구한 기독교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부흥 운동을 통해 경험했던 생동성을 경험하게 해 주며, 변화된 존재로서 더 깊이 세상으로 들어가 차별성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준다는 점에서 대안 운동으로 주목 받아왔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발전되고 확산하여 오면서 초기 영성 운동은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한국에 유입된 것은 1990년대 일인데, 한때 영성이라는 말이 교회의 새로운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사도 운동 같은 신비주의 경향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화하는 수단으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영성 운동의 취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라는 외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영성에 대해 바르게 정의 내리고 원래 취지를 따라 돈독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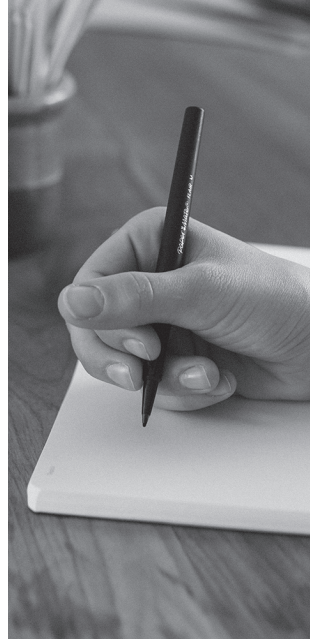
이 책은 소그룹 모임 안에서 영성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월 1회 모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방학을 고려하여 11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매주 모이는 소그룹이 있다면, 1주 방학을 포함해 12주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차례로 한 장씩 공부하고, 나눔을 위한 질문을 사용하여 공부한 내용을 소화하고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돕기 위해 이 책의 내용을 음성 파일로도 준비했습니다. 각 장은 20분 내외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 대한 음성 파일은 UMCdiscipleship.org/Korean 사이트에 있습니다. 모임에서 음성 녹음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내용을 소화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 참석자들이 원한다면, 돌아가면서 차례로 한 단락씩 읽고 나눠도 좋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 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용한 기도 (3분)
 - 3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활동에 마음을 조율합니다.
- 찬송 (5분)
 - 인도자가 정한 찬송을 부릅니다.
- 기도 (2분)
 - 순서를 따라 말은 이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 삶의 나눔 (10분)
 - 지난 모임 이후 있었던 신앙의 변화를 나누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나눕니다. 참석한 인원수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여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합니다.
- 본문 읽기 (25분)
 - 음성 녹음을 들으며 눈으로 책을 읽습니다.

- 혹은 한두 단락씩 돌아가며 읽습니다.
- 나눔 (30분)
 - 각 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나눕니다.
 - 필요에 따라 인도자가 질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열린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눔 내용에 대한 평가나 질문이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맡기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 기도 제목 나눔 (5분)
 -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헤어져 있는 동안 서로를 위해 중보할 것을 언약합니다.
- 합심 기도 (5분)
 - 나누어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인들 성향에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 찬송 (3분)
 - 각 장 마지막에 제시된 찬송을 부릅니다. 현대 찬양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인도자가 적절한 찬양을 골라 부릅니다.
- 주기도 혹은 폐회 기도 (2분)



기초 다지기:

인간 사용 설명서—“왜 영성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한국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합니다. 선교 초기부터 전도자들이 자주 사용해 온 구호 중 하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전도자로 유명했던 최권능 목사와 김익두 목사는 거리를 다니면서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이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 담벼락에 붉은 페인트로 이 구호가 적혀 있는 광경도 목격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구호가 기독교 복음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호는 기독교 복음을 너무 심하게 축소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홉 달 동안 모태에서 자란 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길면 구십 년 정도인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 완전한 거룩과 빛나는 영광, 그 영원한 평화와 기쁨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 경험할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목적을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흔히 듣는 질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죄수는 평생토록 죄를 짓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생 믿으며 헌신한 사람과 믿은 지 한 시간도 안 되는 사람이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평생 믿고 헌신한 사람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는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

는 믿음의 목적이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이라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이의 삶은 불행이고, 믿지 않는 이의 삶은 행복이라는 오해입니다.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평생토록 지옥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간 것이고, 어릴 때부터 믿고 헌신한 사람은 평생토록 천국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존 번연(John Bunyan)은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The City of Destruction)이라고 전제하고 <천로역정>이라는 가상 드라마를 썼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번연의 시각이 옳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누가복음 17:20~21)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너희 안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6)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세 포 가장 작은 것까지도 아시며, 온 우주를 품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낮을 피하여 달아날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장차 망할 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 키팅(Thomas Keating)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 자리에 초청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전채 요리를 즐기며 앞으로 나올 메인 요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인간 존재

우리가 영성에 관해 연구하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를 알아보고 그 잔치를 즐기며 다른 사람들을 그 잔치로 인도해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잔치를 알아보지도,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심성(心性)이 참 좋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마음을 잘 가꾸어 마음 씩씩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육성(肉性)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몸에

속한 성질” 즉 식욕, 성욕, 성취욕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하여 제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영성(靈性)이 깊어”라는 말은 영혼이 맑고 예민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인간 존재가 몇 가지 요소로 결합하여 있다는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믿음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습니다. 인간 존재 안에서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는 가시적 요소(육신)이고, 다른 하나는 비가시적 요소(마음, 정신, 혹은 영혼)입니다.

인간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은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으며,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이 하나여서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 있다고 믿습니다. 영혼 불멸의 믿음은 거의 모든 민족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에 비하면, 성경은 인간을 삼위일체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기능적인 면에서 육(물리적 차원)과 혼(정신적 차원)과 영(초월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셋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육은 인간에게 주어진 동물적인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육성’(肉性)이라고 부릅니다. 혼은 정

신 활동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심성’(心性)이라고 부릅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영의 상태를 가리켜 ‘영성’(靈性)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삼위일체적 존재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그림 1).

동심원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이고, 화살표는 영향력이 미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영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막힘없이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이 마음과 육신을 다스리는 것이 타락 이전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온전히 통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창세기 1:26)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삼위일체(三位一體)성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

그림 1
충만한 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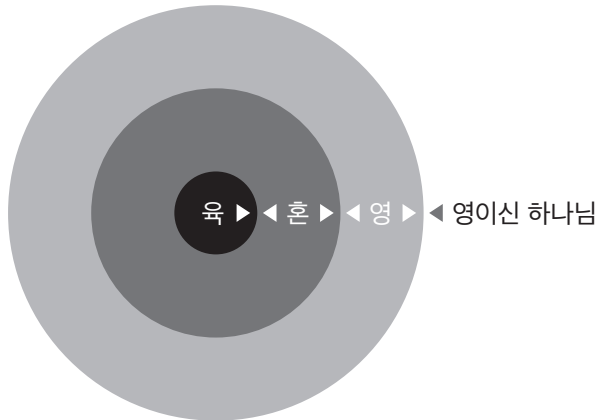


이듯, 육과 혼과 영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상태가 망가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자, 우리의 영은 점점 약해져서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사귀를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영이 무용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삼위일체로서 지어진 인간은 삼위삼체(三位三體)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그림 2).

이 상태에 이르면 영과 혼과 육이 분열되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인간 존재가 하나로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이 가장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영이 가장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혼의 이기심과 육의 동물적 본

그림 2
연약한 영성



성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다툽니다.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혼과 육의 영향력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 우리의 존재 상태는 <그림 2>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지만, 번번이 이기적인 마음과 육신의 욕망에 짓눌려 그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책감은 더 깊어지고, 우리를 위해 차려진 하나님의 잔치를 즐기지 못합니다. 그런 처지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로마서 7:24)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의 영성이 연약했을 때를 기억하고 쓴 고백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림 1>과 같은 존재 상태로 자라면 현실 지옥을 벗어나 현실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은 비로소 통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7:25)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림 1>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림 2> 상태에서 <그림 1> 상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13)

영성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에 따라 마음과 육신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내면적인 갈등과 번민 없이 영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기뻐 뛰며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생명을 씁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

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마태복음 22:37~40)

가장 큰 사명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18~20)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능력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은 홀로 영적 신비경을 즐기자는 뜻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을 내주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잔치 자리에 앉아서 전체 요리를 즐기다 보면, 때가 되어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잔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앞에 차려진 음식을 온전히 즐기면서 앞으로 나올 요리를 기대합니다.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서 영적 충만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중요하면 할수록 현재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이 책에서 씨름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꼭 기억할 사실이 있다면, 영적 성장은 영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미 충분히 입증한바, 인간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추구할 과제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당신은 기독교가 약속하는 구원에 관해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에 대해 새로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2. 삼위일체적 인간 이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 1>과 <그림 2>를 볼 때, 당신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면에서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 당신은 그동안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당신의 경험으로 볼 때, 무엇이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유익했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